

과 학 기 술 과 비 약 의 한 해

얼 마 전 경 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 학원을
현충시키하시였다.

그이께서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수많은 단위들
이 있지만 어찌하여 국가과 학원을
처음으로 찾으시였
는가.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과 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 선 차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고있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
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
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
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
우된다. 국력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흥망
성쇠는 중요하게 과학기술
의 최첨단돌파에 있다. 하
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정초 국가과학원을 찾
으신것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
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
동들의 고립압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

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강
조하시였다.

과학기술이 맨 앞 전선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나아가갈 때 나라와 민족
의 존엄과 자주권도 수호되
고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미
래도 담보될수 있다는 그의
높으신 뜻이 구절구절 맥
박치는 말씀이다.

아버이수령님 탄생 100돔
경축 열병식광장에서 력사적
인 첫 연설을 하시면서 일심
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
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
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
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
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온하
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
학 교육자살림집을 짧은 기
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
세워주시고 11월에는 과학
자, 기술대회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이번에 국가과학원을 찾으
시여셔도 은정과학자거리에
위성과학자거리를 조선로동
당 창건기념일까지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설명
절을 맞으며 물고기도 보내
주시겠다고 하시였으며 과학
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
하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 떠
나시기에 앞서 과학원의 과
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를 찾으시여 몸소 러
전까지 잡아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공헌
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제
일로 아끼시고 내세워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
한 과학기술중시정책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놀라운 성과와
전변들이 펼쳐지고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모든것이 국산화된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
주를 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나고 국방력강화에 크
게 기여하는 국방과학의 첨
단이 돌라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분들의 공장, 기업소
들에서 생산설비들의 현대화
가 힘있게 벌어지고 통합생
산체계를 비롯한 생산과 경
영활동의 정보화가 적극 추
진되었으며 현대적인 과학
연구기자들이 훌륭하게 일
떠섰다.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발영
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
쟁에서 과학기술성과의 앞
찬 열매로 조국의 부흥발진
을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원
대한 구상과 목표는 확고부
동하다.

과학기술발전을 농업부문,
건설부문과 함께 올해 신년
사의 첫 과업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
워주시고 과학기술중시정
책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 수님의 현명 한 령도
와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실
천으로 받아가시는 수백만의
지식인대군이 있어 공화국은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
어가는 올해의 장엄한 진군
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
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옛 사람들이 이르기 를
《곡식을 심으면 일년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십년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
람을 기르면 백년후가 든든
하다.》고 했다.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
래운명을 결정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적
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신년사에서 교육을 비롯
한 문화건설에서 큰결
음을 내릴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고 해도 사회주의
문명국을 일떠세우자고 해도
제일 중요했은은 인재들
키우는 사업이기에 문화건설
의 맨 앞자리에 교육사업을
내세우신것이다.

정보기술의 폭발적인 발
전으로 세계에서 놀라운 사
회경제적변혁이 일어나고있
는 오늘날 지적자원, 인재
대렬의 확보를 위한 교육사
업은 국가중심의 국가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을 타고 세
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재육
성을 위한 교육문제를 국가
적인 중점전략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넣고있다.

공화국이 21세기의 새
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여
나가는 각동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것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하신 우월
한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시

책이 있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공화국
에서 교육사업은 민족부흥
의 천하지대본으로 자기의
자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
어왔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
기에 독창적인 무료교육제
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하시시고 이에 기초하여
전반적무료교육제의 빛나
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였다.
한평생 조국의 미래인 후
대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교육사업발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여 이 땅우
에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고계시는분은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얼마전 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에서는 현시대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각

원수님의 위대한 조국관, 미
래관을 담은 송고한 후대사
랑의 결정체이다.

그이께서는 뿌리가 든든하
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육을 강화하여야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다고 하시며 전반적12년
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거
창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
어주시고 지식경제시대, 두
뇌전의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

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
형양시의 룡흥초등학교에
현대적인 김일성종합대
학 교육자살림집도 번듯하
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였
다. 그 사랑에 떠받들려 오
는 공화국에서는 세인을 놀
래우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이
돌라되고있으며 국제수학을
림피와 같은 정기적인 국제
지식경연무대들에서 미더운
새 세대들이 뛰어난 실력으
로 조국의 위업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성
장한 인재대군이 있고 사회
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
래를 위해 교육사업을 제
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의 미래는 백년, 천
년 밝고 창창하며 머지않아
이 땅에는 통일되고 번영하
는 강성국가가 반드시 일떠
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백 년 후 에 도 든 든 하 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후대들
을 위한 사랑의 수천수만리를
걸으시면서 온 나라에 학교
들과 학생소년궁전, 야영소
들을 세우도록 하시고 전반
적9년제기술의무교육에 이
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험난한 전진길을 헤쳐가시며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로 더
욱 빛내주시였다. 고난의 행
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
에서도 전반적무료교육, 의
무교육이 중단없이 진행되다
록 하시고 후대들을 위해서
라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만을 안겨주신 그이의
뜨거운 후대사랑이 있어 시
련의 시기에도 해빛 밝은 교
실마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
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

나라들의 교육기간과 경제성
장률의 호상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교육기간을 1년만
늘어도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비할바없이 높아진다는 자료
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
의 부담으로 교육기간을 늘
이려면 너무도 엄청난 투자
가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이
사업을 어느 나라에서나 선
뜻 하지 못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공화국에서는 최
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
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
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여 머지않아 보다 풍
부한 인재자원, 지식자원을
가지고 지식경제시대를 주도
해나갈 확고한 담보를 마련
한것이다. 이 력사적사변은
비범한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천만큼도 아
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인 민 이 사 랑 하 는 경 도 자

또한 그이께서 문수물놀이
장을 세계적인 물놀이장으
로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
에게 안겨주는것이 당의 결
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는데
해서와 마식령스키장을 인
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
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
리며 될 만만대개의 기념비
적창조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나쉬 돔—
초치》1일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사진들을
모시고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웅곤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일에 지난 한해동안 조
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
적과 변혁이 창조된데 대하

여 련거하고 다음과 같이 전
하였다.
조선인민은 그처럼 크나
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조국경사에 길이 빛날 업적
을 이룩하신 위대한 행복
의 창조자, 절세의 애국자
이신 김정은령도자께 다함
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고결한 품
모에서 사람들은 인민의 운
명과 미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을 보
았다. 그이께서는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려
일으킨다.

그이께서는 현대과학기술
에 정통하고계실뿐아니라
경제발전방향과 그 동향, 문
학과 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

든 분야를 환히 꿰들고계신
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특
히 비범한 최고사령관으로서
세계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계신다. 그이의 령
도는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생
명선으로 되고있다.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불변의 믿음, 그것은
위대한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
결출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령도자의 두리에 굳
게 뭉쳐 광명한 미래를 앞
당겨나갈것이며 백두에서 개
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가 전체 인민의
마음과 발걸음을 애국충정에
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지
난해를 총화하고 올해의 전
망과 과업을 제시한 신년사
의 자자구구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
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거어이 일떠세울 불
굴의 신념과 의지로 영웅적
투쟁을 과감히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한 대목,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한다는 구절을 보면 지
난해의 의의있고 훌륭한 모
든 성과들이 인민들의 헌신
적인 애국의 노력에 따른것
이라는 크나큰 믿음이 있고

사 랑 과 믿 음 의 정 치

인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
라는 열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
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
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
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
시였는데 마디마디에는 자신
을 믿는것처럼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의 힘과 애국
충정에 의거하여 올해를 장
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
혁의 해로 만드시려는 굳은
확신과 의지가 반영되어있
다. 농업, 건설, 과학기술부
문으로부터 교육, 보건, 체
육, 문학예술부분과 국방력
강화문제에 이르기까지 올해
에 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
을 명시하신 그이의 구상과
의도, 결심에는 전체 인민의

순결한 애국심과 무궁무진한
창조적행,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그이께서 올해에 새로운
변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신 건설부문만 봐도 그렇
다. 지난해에 전체 인민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는 믿음과 고무의 호
소문을 보내시여 마식령스키
장, 미림승마구락부, 조국해
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
놀이장, 온하과학자거리와
같은 창조물들을 짧은 기간
에 련이어 일떠세우고 건설
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하
신 그이께서는 올해에 세계
적수준의 건축물들과 인민들
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

설을 많이 할데 대한 과업
을 제시하시였다. 강원평의
고산파수능장과 세로지주
축산기지건설 그리고 살림집과
문화봉사기지건설 등 방대한
건설과제를 밝히신 그이의
구상에는 산도 때뚝기고 바
다도 매우는 불굴의 기개와
고귀한 피와 땀으로 조선을
한단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인민들과 인민군장
병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있는것이다. 강성국가의 기
초를 튼튼히 다져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
되게 하시려는 숭고한 사랑
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지 난 해에 남 들 같 으 면
10년, 20년 걸려서야 할 방
대한 규모의 세계적인 건축
물들이 몇달사이엔 건설되
게 된것은 온 한해 연 100여차

에 걸쳐 건설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
시며 건설자, 생산자들을 뜨
겁게 고무격려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
랑, 애국헌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그이께서는 부강조국건설
에서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매우 중시하시는데 올해 신
년사에서도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
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
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동전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제일로 위
하고인민대중의 무궁무진
한 힘에 의거하여 정치를 하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
여 올해에 공화국은 더 큰
비약과 승리의 한길을 걸어
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고있다.
민족, 그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세대로 풍속이 아니
라 거기에 바로 민족의 수결
과 넋이 깃들여있고 민족의
 고유한 모습과 발자취가 어
려있는것이다.

결국 민족을 버리면 민족
성을 잃게 되고 민족이 자기
의 넋과 본래의 모습을 잃으
면 이질화되고 망하게 되
는 것이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군인
들과 웃음피관을 마주하시
고 그 방범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최고사령관도
전사들이 좋아하는 웃음피
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
시면서 민족들이와 관련한
도서도 출판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다.

오늘 공화국은 민족성을
중시하고 꽃피나가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
며 천황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민
족의 전통을 대를 이어 전하
며 존엄을 떨치고있다.

김 연 희

자식을 키우는 어
머니치고 걱정이 없
는 어머니는 아마 세
상에 없을것이다.
않지는 않겠는지,
학교에 가서는 공부
를 잘하는지, 앞으로
커서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지...

태어난 첫날부터
다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머리
에 백발을 없을 때
까지 어머니의 근심
과 걱정은 자식결에
늘 생동처럼 붙어
다닌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머니의 걱정은 오
만가지라 했었다. 그러나 어
머니들 일반이 품고있는 법
상치 아니한 걱정도 있다.
머칠전이었다.

취재차로 새로 일떠선 육
류아동병원에 갔던 나는 뜻
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
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병원
문앞에서 막 싱개이를 하고
있었다. 사연이론 자식의
퇴원일이어서 병원을 찾은
어머니앞에서 아들이 병원
에 그냥 있겠다는 투정질에
빳빳인 실랑이였다.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울음부터 터뜨리며 안가겠

다고 버둥대던 애가 병원
에 들어가보고는 언제 아왔
던가싶게 뺨뺨이 웃으며 여
기저기 뛰어다니다이 이제
는 입원생활에 정이 들어 퇴
원을 안하겠다고 한다는것
이었다.

놀이감이랑 놀이터랑 참
재미있고 좋아서 집보다 더
좋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며 아들에게 어머니의 등을
때밀고있는참이었다.

어머니는 울러도 본다.
꾸지람도 한다며 너무도
안타까와 그만 울상이 되었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
젠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
마구락부에 갔을 때에도 돌
아서지 않겠다고 때질을 해
대는바람에 정말 혼술이 났
다고, 이제는 그 어디에 가
도 아들을 데리 집으로 데
리고올 걱정이 먼저 앞선다
고 말하느것이였다.

걱정, 이런 류다른 걱정,
행복한 걱정을 안고있는것
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
들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자식들때
문에 눈물에 젖은 근심과 걱
정을 안고 사는 어머니들이
적지 않다.

지금 많은 자본주의나라
들에서는 자자 한명을 낳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
는데 드는 양육비부담이 너

무 힘에 부쳐 어머니들이 한
숨과 걱정으로 날을 보낸다
고 한다.

엄청난 돈적정때문에 청
춘남녀들속에서는 결혼자체
를 포기하는 경우가 만연되
고 자식을 낳지 않는 부모들
이 부지기수이며 무자식상팔
자라는 말이 보편화되고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
에서 가족 자식이 어지러운
사회풍조에 물젖는 패륜아
가 되지는 않겠는지, 아동학
대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겠
는지...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비밀비재한 현상이
고 현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
어느 어머니의 얼굴을 들어
다 보아도 그런 근심과 걱정
의 그늘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

병원에 가서 하는 걱정은
치료비걱정이 아니라 입원시
켰던 아이들이 퇴원시킬 걱
정 아닌 걱정이다.

나는 취재수첩을 펼쳐들고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걱정
의 마음을 적어내려.

세상이 없는 걱정, 행복하
는 걱정속에 이 나라 어머니들
이 산다.

아니, 이 나라의 모든 사
람들이 산다고.

리 경 율



육류아동병원의 실내 놀이장에서